

귀농·귀촌, 10가구 중 6가구 '만족'

귀농 5년차 평균 소득 3898만원...농가 평균소득 웃돌아

귀농 교육 경험자 소득, 귀농 교육 비경험자보다 높아

귀농·귀촌 10가구 중 6가구가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촌 출신 가구가 귀농하기 때 문인 것을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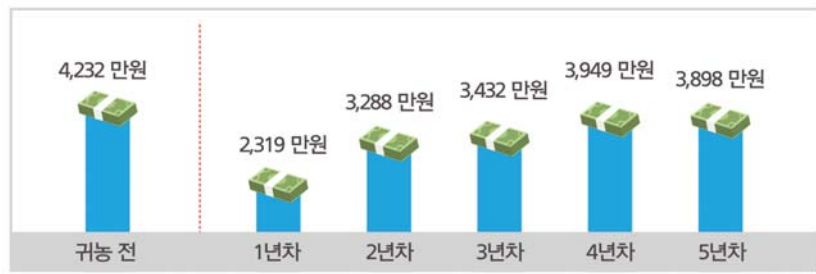
더욱이 귀농 5년차에 평균 소득은 3898만원으로 농가 평균소득을 웃돌 뿐 아니라 귀농전 평균 가구 소득을 거의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귀농·귀촌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유, 소득, 주거형태, 경영여건, 지역응와 등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턴형)한 귀농은 53.0%, 귀촌은 37.4%였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I턴형)한 귀농은 19.2%, 귀촌은 18.5%였다. U턴형과 I턴형을 포함하면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농촌으로 귀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귀농은 60.5%, 귀촌은 63.8%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귀농은 32.5%, 귀촌은 33.0%였다. 불만족은 귀농 7.0%, 귀촌 3.2%에 불과했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가구의 주요 불만족 이유는 귀농은 자금부족(30.0%), 영농기술·경험부족



● 귀농 5년차의 가구 소득



(23.7%) 순으로 높았다. 귀촌은 영농기술·경험부족(53.0%), 자금부족(29.1%) 순이었다.

귀농 가구의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5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2년 넘게 귀농을 준비한 것이다.

귀촌 가구 중 19.7%가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9.2%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고 0.5%는 등록 없이 영농에 종사했다. 조사대상 귀촌 가구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기는 귀촌 다음연도인 2년차에 평균 78.3%로 가장 많았다.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은 4232만원이었다. 이들은 귀농 1년차에 2319만원에서 5년차에 3898만원까지 회복했다. 귀농 5년차의 평균소득은

농가 평균소득(3824만원)을 넘어섰다.

귀농 가구의 주재배작목 선택 이유로는 ▲재배의 용이성(43.1%) ▲높은 소득(19.7) ▲주변인 권유(14.6) ▲지역 특화작목(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의 43.1%는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가구의 87.2%는 직장 취업, 지역업, 농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가구 농업외 경제활동은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5.2%) ▲지역업(23.0) ▲직장취업(22.4) ▲임시직(14.8) ▲농업임금노동(10.4) 등의 순이었다.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196

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이다.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세, 교육비 순으로 지출했다.

귀농가구의 66.7% 귀촌가구의 27.8%가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십 등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5년 차가 된 2012년 귀농인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귀농 교육 경험자의 귀농 첫해와 5년차 농업소득 증가 폭(1523만원)이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귀농인(685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귀농·귀촌인들은 거주지에 확충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취약계층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귀농·귀촌인의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 적응 등에 귀농·귀촌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귀농·귀촌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도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 기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갤럽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013~2017년까지 귀농한 1257가구, 귀촌한 가구 1257가구 등 총 2514가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2.8%p이다.



라이카 Q2 선보이는 류준열 배우 류준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라이카 스토어에서 열린 '라이카 Q2 출시 기념 론칭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벤처 투자자금 유치, 지금이 기회”

오는 15일까지 호남권 벤처투자 로드쇼 참여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자금조달을 위해 오는 4월에 '호남권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벤처투자 로드쇼는 수도권 벤처캐피탈이 투자 기반이 미흡한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상담과 투자유치 설명회(IR)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호남권에서는 4월 10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 행사가 개최되며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크라우드협회, 호남권 창업선도대학(광주대, 순천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과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재홍 광주·전남청장은 "수도권에 비해 우리 지역의 벤처투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어렵다"면서, "이번에 개최되는 벤처투자로드쇼를 통해 많은 창업·벤처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혁신성장하여 벤처 성공신화를 써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구분하여 투자설명회(IR)는 3월 15일까지, 상담회는 4월 1일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메일(invest@kvc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062-360-911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은홍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인 회생 지원'...12년간 80% 농지 되찾아

작년까지 경영악화 농가 1만304곳에 2조767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직전에 내몰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농가 1만304곳에 총 2조767억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재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받은 전체

농가의 80%가 농지를 되찾았다.

공사는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컨설팅의 일환으로 지난 달 21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8일 경남지역까지 전국 8개 도별로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순회교육에서는 참여 농가가 스스로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환경변화와 대응', '농업정책·농업실용 기초법률', '환매제

도 설명·환매전략' 등을 집중 교육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연간 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팀(1577-7770)'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시·군 지사, 농지은행포탈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